

| 현장르포 |

남미 사료곡물산업 시찰기



한 중 헌
두산생물자원(주) 대리

■ 서론

필자는 지난 2014년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사료협회 인천사무소 박동희 소장, 글렌코어코리아 노희운 대리와 함께 남미산 원료(옥수수 및 대두박) 주요 수출국인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산지 현황, 대두 Crushing공장, 수출항 및 내륙 이송 상황 등의 견학 및 미팅을 통해 시장파악 및 구매시 고려할 사항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구매에 활용하기 위하여 출장을 다녀왔다.

■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주요 곡물 수출항구 현황

1) 브라질

① 브라질 북부지방

- 브라질의 곡물 수출이 이루어지는 항구는 북부지방의 아마존 강에 있는 river port 두개를 포함하여 총 9개가

있으며, 중북부지역에는 river port 두개를 포함하여 4개가 있고 대두 수출 비중은 13% 정도로 다음과 같다.

- Itaqui(브라질 중동부 해안), Aratu(브라질 북부 해안), Itacoatiara(river port), Santarem(river port)
- ② 브라질 남동부 및 남부지역
 - 남동부 및 남부지역에 총 5개항이 있고 86%를 수출하며 5개항 중 주요항인 Santos, Paranagua, Rio Grande항에서 브라질 전체 대두 수출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 Santos, Paranagua, Rio Grande, Sao Francisco do Sul, Tubarao

2) 아르헨티나

- 파라과이의 파라나강과 델 라 빨라파 강에 의해 형성된 내륙수로 및 광범위한 연안과 함께 공공용 항만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용 항만 시설이 존재하고 있었다.

- 항구운송의 50%는 곡물 및 기타 파생 상품(곡물로 만든 기름)이 차지하며, 75% 정도가 벌크화물이다.
- 그중 66%는 로사리오와 산타페 사이의 파라나강 연안 민간 항구가 담당하며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껌겐과 바이아 블랑카 연안의 항구들이 담당한다.
- 전체적으로 현재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출은 약 8.5백만톤, 대두박 수출은 약 25백만톤 수준이며, 주로 3월에서 9월에 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 리오 델 라 플라타-파라나 경로나 육지와의 접근 경로는 여전히 병목 현상이 존재하고 있지만 해상경로의 병목 현상은 점차 나아지는 추세다.
- 현지 아르헨티나의 농장에서는 2~3년 동안 옥수수 또는 대두박을 파종하고 1년은 수수(sorghum)를 파종하고 있다.
- 아직까지는 남미산 옥수수에 대하여 미산 대비 프리미엄을 높게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곡물상품거래소의 선물가격 하락세로 농부들이 시장에 현물판매계약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 올해 3~4월의 수확기간 중에 많은 비로 인하여 수확 지연 발생이 소폭 있었으며, 이 시기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품질변이가 적은 대두를 먼저 수확한 후 옥수수를 나중에 수확 진행하였다.
- 아르헨티나의 경제사정 및 화폐가치하락으로 현물 수급상황이 최근 2년 동안의 계약진행 현황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 금번 출장기간 중 방문장소

1) 아르헨티나

- ① 부에노스아이레스 글렌코어 사무실 방문
 - 아르헨티나 옥수수 작황 및 수급현황 공유
 - 선적기준 작년 3월~올해 2월까지의 옥수수 수출량은 총 약 18백만톤이며, 그중 한국으로의 수출은 가장 많은 2백만톤을 선적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의 가격하락으로 미산 옥수수 공급이 되어 작년 말 부터는 한국으로의 수출 실적이 없다.

- ② 로사리오 항구 및 글렌코어 대두가공 공장 방문
 - 파라나강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 수심은 계절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12미터 이상 유지된다.
 - 파라나강 주위로 글렌코어를 비롯하여 LDC, BUNGE 등의 대두가공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두유 및 대두박, 레시틴 등의 산물에 대하여 강으로의 선적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바로 선적 가능하다(파나막스의 경우 수심 문제로 인하여 약 4만톤 가량 선적후 강 하류에서 추가 선적).
 - 방문한 글렌코어 대두가공시설은 하루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글렌코어 현지사무소



▲ 아르헨티나 글렌코어 대두가공공장(Renova사) 및 로사리오 Up-River 선적시설



2만톤의 대두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며, 2010년 공사가 시작되어 2013년 5월부터 가동 시작된 공장으로 단일 공장으로서 세계 최대규모라고 할 수 있다(글렌코어 지분 약 55%).

- 현재는 현지의 경제사정 및 환율 등의 문제로 농부들이 시장에 파는 대두의 양이 전년대비 적어 full time작업은 하지 못하고 있다.
- 대두박은 48%의 hi-protein이며, 대두가공을 비롯하여 해바라기씨의 착유도 역시 진행하고 있었다.



▲ 로사리오항 선적시설 및 선적중인 대두박 모선

- 보관시설 : 대두박 약 15만톤, 대두유 45천톤, 레시틴 10천톤 저장 가능.

2) 브라질

① 상파울로 글렌코어 사무실 방문

- 농업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정도이다.
- 중서부지역인 Mato Grosso지역이 최대 농업지역이지만 주요 수출항까지의 거리가 멀어 효율적이지 못한 편이다.
- 이는 주로 주지사의 성향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며 Mato Grosso주 주지사는 농업을 장려하는 성향이어서 농업에 지원이 집중되기 때문이며 반면 항구에서 좀더 가까운 바로 아래에 위치한 주인 '마투그로수두술'주 주지사는 자연을 보존하여 관광업을 육성하는 쪽을 선호하는 성향이어서 농업이 발달하지 않는다고 한다.
- 부분의 공급사들은 철도 및 트럭 운송을 장기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물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는 페널티도 있다고 한다.
- 현재는 항구에 도착된 옥수수가 내륙 지역에 있는 옥수수 보다 낮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운송을 안하고 항구의

옥수수의 매입을 하기도 하지만 운송 계약의 페널티 때문에 내륙지역의 옥수수를 계약하고 있다.



▲ 산토스항 전경(거대한 곡물선적시설의 일부)

- 내륙운송비 비중이 커서 옥수수의 경우 현지 매입가격이 100불/톤 부근으로 형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 현재 브라질 북쪽에 위치한 이타키 항구의 개항과 관련하여 글렌코어에서도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항구는 2016년까지 500백만톤 이상 규모의 선적시설이 설립될 것이다.
- 이타키 항구가 본격적으로 곡물 선적항으로서 자리를 잡을 경우, 기존의 미산 걸프지역과 함께 기존의 남미항구와 베이스스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② 산토스 항 선적시설 및 싸이로 시설 견학

- 상파울루시의 동남쪽 약 100km 이내에 위치해 있다.
- 남미 최대의 수출항으로 연간 1억톤을 상회하는 화물량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브라질 무역량의 25%~30%)
- 수출에서의 체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된 이유는 내륙운송의 병목 현상 때문임이다.
- 2013년에 사상 최고의 극심한 체선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주 요인은 산토스항 내 화재로 인한 영향이 컸다고 한다.
- 현재는 체선 상황이 심하지 않았으며 (외항에 10여척 정도, 이 정도는 다음 순번을 타게 되니 체선이라 볼 수 없음) 이는 수출선적이 여러 나라로 분산된 효과, 또한 내륙물류가 개선된 효과 때문으로 보이며 또한 2013년의 화재로 인한 체선 영향이 지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내륙운송은 현재 철도가 70%를 담당하며 나머지 30%는 트럭으로 아직도 도로사정은 좋은 편이 아니다(상파울로에서 거리는 가까우나 큰 산을 넘어야 하며 트럭운송량이 워낙 많아 체증이 매우 심함).
- 대체로 금번 출장에 가보지 못한 파라나구아항의 체선 상황이 항상 산토스항 보다는 심한 상황이지만 올해는 상대적으로 인근항인 산토스항, 리오그

란데항의 체선 상황이 매우 양호하여 예년에 비해 분산 효과로 인한 체선 상황이 듣던 바와는 좀 다른 것으로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닌 듯 하였다.

■ 결론

브라질의 농업 및 가공공장, 내륙 물류, 항만시설 등에 대해 직접 견학함으로써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하여 국내에 알려진 바와 다소는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남미는 세계적인 곡물 생산지역으로서 천부적인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를 위한 항구 시설의 이점(넓은 강폭 및 수심, 항구 앞에 자리잡은 섬으로 인한 천부적인 항구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래의 출장 목적이었던 당 구매단체 옥수수 모선이 파라나과 항에서 선적되어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기존의 시황 자료 및 데이터로만 볼 수 있었던 옥수수 및 대두의 시황을 직접 보며 현지의 사정을 더욱 깊게 알 수 있었으며, 글렌코어 현지 트레이더 및 담당자들께서도 환대해주어 유익한 출장이 되었다. 